

보도시점

배포 직후
사진 14:00 이후

배포 2025. 12. 8.(월)

조달청, '조달개혁 이행관리TF' 출범... 공공조달 개혁 본격 착수

- 조달 자율화, 경쟁·가격·품질 강화, 혁신조달·AI 산업 육성 등 전 과정 점검
-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1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현장 이행을 위해 8일 ‘조달개혁 이행관리TF’ 키포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①수요기관 자율성 확대, ②경쟁·가격·품질 관리 강화, ③혁신조달·AI 산업 육성, ④사회적 책임조달 강화 등 4개 분야 70개 과제를 통해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조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TF는 매월 2회 회의를 통해 개혁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조달업계와 수요기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분석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개혁의 성패는 속도감 있는 추진은 물론 실행과정의 모니터링과 피드백도 중요하다”면서,

“현장 의견을 면밀히 듣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조달개혁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민 (042-724-6378)
		담당자	사무관	허창훈 (042-724-6392)